정녕人物의고장

역사속의 인물

古下 宋鎭禹

우리고장은 예로부터 많은 애국지사와 효자·열녀들을 배출한 고장으로 이름이 나있다.

암울했던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생사에 연연함 없이 오직 조국광복과 민중계몽의 선두에서 민족혼을 부르짖으며 이나라 백성을 이끌어 왔던 분이 바로 고하 송진우선생이다.

고하선생은 1890년 5월8일 금성면 대곡리에서 아버지 송훈과 어머니 양씨 사이의 다섯째로 태어났다. 태몽에 금빛나는 가지를 한아름 땄다하여 아명을 옥윤이라 했고 4세때부터 한학을 배울만큼 비범했다.

7세때 뒷날 사상적 영향을 크게 받은것이 당시 湖南倡義大將으로 국운이 기울어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것을 비통해 하여 항일운동을 주도하여 일본군을 몰아 내는데 앞장서 싸우시다 형장에서 최후를 마치신 성리학의 대가 省齋 奇參衍 선생의 밑에서 수학하면서 사상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선생의 유서속에 「出師未捷身先死呑日曾年夢亦虛라 하였으니 꿈에 해를 삼켰으니 기개가 불타오르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 이는 헛무하구나 역시 장부의 기개와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古下선생이 말했듯이 일찌기 省齋선생의 사상적 영향으로 자신이 성장하였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17세때 창평 영학 학숙에서 동문수학한 부통령김성수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에서 한일합방 이전까지 공부하였다.

한일합방의 충격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22세때 메이지 대학에 전입하여 법과에 몰두하였으며 이때 「유학생 친목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법과 졸업후 중앙학교 교장에 취임해 후진양성에 애쓰는 한편 김성수 현상윤등과 거사를 계획, 1919년 현상윤 최인 최남선등과 모여 민족대표자 명의의 독립선언부의 골격을 초안하였으며 천도교, 불교, 기독교등 종교계까지 제휴하여 드디어 3·1운동을 일으켰다. 이것을 기화로 일제에 핍금, 투옥 되었다.

1년후 석방된 선생은 김성수와 함께 창간했던 당시 대표적 항일 민족지였던 동아일보사에 3대 사장으로 취임, 1940년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되기까지 고문, 주필등을 맡아 동아일보를 이끌었으며 여기에서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추진등과 브나로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중계몽의 선두에 섰다.

또한 1931년에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하여 이충무공 유적 보존운동을 전개, 한산도 제승당을 중수하였고 이충무공의 후손이 가난에 시달림을 알고 국민성금을 모아 주는 목숨을 구하고 장개석 총통으로부터 감사은패를 받기도 했으며 광복전까지 신사참배 반대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사건, 동아일보 자진폐간 독립운동에 전력하였다.

1945년 8월 총독부의 4차에 걸친 정권인수 교섭에 불응하는 가운데 광복을 맞아 중경에서 귀국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지하는 한편, 9월7일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수석총무에 취임하였다.

또한 12월1일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폐간되었던 동아일보를 중간하여 제8대 사장에 취임, 반탁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하던중 동년 12월30일 한현우등 6명의 반민족자들의 저격에 의해 서울 원서동 자택에서 서거하였다.

이때 선생의 나이 향년 56세였다.

한편 고하선생 추모비 건립운동이 우리고장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1991년 5월8일 달양읍 만섭리 관어공원에 추모비가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선생의 고귀한 애국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선조의 얼이 숨쉬는 면앙정

「내려다보 땅이 있고 우러러보면 하늘이 있어 그 가운데 호연히 풍월을 부르고 산천을 모이게하는 경치가 있으니 명아주 지팡이를 붙잡고 만년을 보내리라」

대남에 둘러싸인 돌계단을 따라 올라서면 과연 宋純이 이렇게 격찬했을 만한 풍광이 한눈에 펼쳐진다.

草堂三間이지만 그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작품들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왔을법한 일이다.

俛仰亭 송순은 관직에서 물러난후 향리인 이곳 봉산면 제월리에 면앙정을 세우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강호제현들과 국사를 논하는 한편 후학육성에 헌신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俛仰亭長歌를 비롯하여 自上特賜黃菊歌1편, 雜歌2편, 致仕歌 3편, 悲憤歌, 俛仰亭短歌등 7편, 五倫歌 5편등이 있다.

그러나 그의 文集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 작품은 모두 원문이 아니고 한역가여서 안타깝다.

俛仰亭 송순은 조선 성종 24년인 1493년에 고서면 산덕리에서 출생하여 21세에 進士하고 26세에 別試文科 乙科에 급제한후 벼슬길에 올라 홍문관 부응교 직제한 예문관,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대사헌에 올랐다.

뒤이어 漢城府尹을 지내고 55세때 中宗實錄에 참수하기도 하였다.

60세에는 善山府使를 역임, 66세에 全州府尹을 거쳐 의정부 우참찬 겸 춘추관사를 지내고 77세때 관직에서 물러났다.

송순은 90세로 세상을 떠나기전까지 이곳에서 생활하며 고제봉, 기고봉, 임백호, 송강 정철등을 길러냈다.

俛仰亭은 1972년에 全南道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 지붕번와 및 1989년에 건물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